

최장 미세먼지 공습에 일상생활 변화

광주와 전남지역의 미세먼지 특보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관련 제품판매가 급증하는 등 일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행정·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례없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6일 광주·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광주시와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시작으로 특보가 이날 오전까지 일주일째 유지됐다.

광주·전남 서부권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때 경보로 격상, 초미세먼지 특보제 도입(2015년) 이래 최초의 경보 발령으로 기록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는 광주 41 $\mu\text{g}/\text{m}^3$, 전남은 서부·동부권 모두 29 $\mu\text{g}/\text{m}^3$ 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미세먼지(PM10)의 시간당 평균 농도는 광주가 62 $\mu\text{g}/\text{m}^3$,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이 각각 44 $\mu\text{g}/\text{m}^3$, 42 $\mu\text{g}/\text{m}^3$ 로 측정됐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일째 고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속된 미세먼지 공습은 시·도민의 일상생활을 바꿨다.

직장인들 대다수는 마스크를 쓰거나 목도리·외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근길에 나섰다. 각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미세먼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식을 삼가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었다.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검색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확인하고 외출에 나서는 일도 일상의 일부가 됐다.

취업준비생 이모(28·여)씨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앱을 확인하고 방진마스크 등을 챙긴다.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하루 일정을 조정해 미세먼지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개월된 딸을 둔 한 어머니는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모세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이라고 해 걱정이 크다"면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실내 키즈카페 등지를 찾게 되지만 최근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불린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광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일주일째 유지

교육·행정 '비상'...대책 실효성 '논란'

공기청정기 판매 전체 신장률은 지난해 대비 기준 2017년 52%, 2018년 162%, 지난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271%에 이르는 등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스크의 전체 신장률 또한 2017년 62%, 2018년 159%, 올해 현재 328%를 기록하고 있다.

폐·기관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삼과 도라지, 비타민 제품 판매도 지난 1월1일부터 최근까지 6.8~27.1%까지 증가했다.

미세먼지가 초·중·고 개학시기에 맞춰 기승을 부리면서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체육활동·현장학습 등 실의 수업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 급식시설 기계·기구 세척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또 각 학교별로 호흡기·심혈관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민감군에 해당하는 학생이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감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광주시는 올해 총 5억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된 어린이통학차량 114대를 LPG차종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0대에 한해 1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노후 경유 차량 교체로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각 시·군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함께 건설업장 207곳, 시

멘트제품제조업 관련 시설 452곳 등 총 307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도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수년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에 대해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지방비 1250만원 등이 지원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단 2대에 불과하다.

도는 뒤늦게 내년 20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역 내 수소충전소가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직원들이 청사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의 풍습을 부리고 있고 시민참여도 저조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K급 소화기 시연회하는 소방관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대전 서구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에서 열린 음식점과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와 관련해 K급 주방용 화재용 소화기 시연회가 열려 K급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고 있다.

검찰, 콘텐츠진흥원 압수수색...직원 뇌물수수 혐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장급 직원이 외부 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 6명을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

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지역사업본부 소속 뉴콘텐츠팀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가상현실콘텐츠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 관련 정부 개발 과제 업체 수사 과정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당 부서 차장급 직원이 외부 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

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2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미국 파워볼 투자미끼 사기 일당던미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하나인 '파워볼'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 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 파워볼 복권 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전자복권 '파워볼'과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해외 SNS 게시판 등에 5배에서 최고 2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수 십배에 달하는 금액에 당첨됐다고 한 뒤 수익금 환급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비용, 물수계좌 복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추가 요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 억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된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환 기자

부인 탄 차량 해상 추락시켜 살해 50대 구속

17억원 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탑승한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50대가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부인 B(47)씨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5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교체를 하던 중이던 10월부터 11월사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 B씨와 재혼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 B씨를 믿게 하기 위해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이틀만에 동생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바닷물이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뒷좌석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졌을 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수사본부를 꾸렸다"며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중생 통학버스 태우려 한 70대 기사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태워야 할 학원생으로 착각해 여중생을 차량에 태우려고 한 혐의(감금미수)로 통학버스 운전기사 A(7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중학생 B(15)양을 자신이 운전하는 25인승 학원 통학버스에 태우려고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학원 가방과 색상 등이 비슷한 B양의 가방을 보고 착각,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B양에게 학원에 태워주겠다고 말했으며 B양이 거부하자 "우리 학원 가방이 아니냐며 가방을 끌어당겨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께 같은 장소에서 태우기로 한 남학생이 있었으며, 당시 통학버스 안에는 다른 학생 여러 명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착각한 것이다. 학원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탑승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